

PLAY

한여름의 지방분권화현상?

최영주 | 연극평론가

최근 성행하는 지역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발전적 제안은 각 축제가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보다 지역에 적합한 축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여름 성황을 이루었던 각종 국제적 지역축제들의 동향을 살펴 여러 지역 연극제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제적 행사와 중앙연극의 대안으로서 지역 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언젠가 연극인들이 입을 모아 1년 중 한 달 동안만은 연극을 쉬어 보자고 했던 때가 7월이었던가, 8월이었던가? 대학로에 공연이 넘칠 때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도 보려했던 작품을 놓친 적이 허다했다. 그런 경우 재공연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보고, 안 한다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꼭 내 것이어야 하는 것을 코앞에서 잃어버린 듯이 아쉬워했는데 말이다.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자 성실하지 못한 평론가에게도 새삼 한가해질 여유가 찾아든다. 특히, 이번 여름은 많은 극단들이 잠수에 들어 간 듯하다. 아마도 가을 공연을 위해 어느 지하 연습실에서 무던히도 땀을 빼고 있겠지.

새로운 풍속도를 만드는 지역축제

그런데 웬 걸, 모처럼 저녁 시간의 여유를 만끽하는데, '날 보러 와요' 라는 듯 연극 잡지의 한 장을 가득 메운 지방 연극 축제의 광고 면은 외면하자니 찝찝하고 미추하자니 부담스러운 러브콜처럼 마음 한구석을 당긴다. 외면한다면 한동안은 미련이 남을 것이고, 뛰어든다면 이로 인해 생긴 다른 일의 핑크를 메우느라 여름 끄트머리가 부산해질 법하다. 한여름 새로운 풍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하다.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이들 지역 축제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참으로 풍성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며, 지역 연극 축제는 단지 지역민의 축제가 아닌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이 새삼 자명해진다.

이 글은 '한여름 지방 분권화 현상' 처럼 대학로 거리를 쓸물처럼 비우고 각 지역에 또아리를 튼 지역 연극 축제에 대한 단평이 될 것이다. 경험과 평소의 생각을 쉬어 지역 연극 축제에 대한 풍경을 살펴보고, 그 성격을 정리하거나 축제가 지향해야 할 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 같은 의도에서 우선 지역 축제와 지역 연극제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번 여

름 성향을 이루었던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밀양여름 공연예술제> <거창국제연극제>의 풍경을 둘러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지역 연극제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제적 행사와 동시에 중앙 연극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 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역 연극 축제의 조건

지역 축제는 정치적, 사회적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역 분권화와 지역 자치와 더불어 생긴 지역 문화의 상징적 현상이다. 지역 문화의 자발적인 발전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축제의 핵심이다. 한국에서의 지역 축제는 연극의 경우 단기간에 걸친 지역 분권화의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주체적 인식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성공적인 지역 연극 축제는 지역 상품의 개발과 경제적 활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축제의 속성이 지역의 토속적 문화를 끌어안는데 반해, 지역 연극 축제는 연극이라는 장르와 결합하여 중앙 문화와 동시에 세계 각지의 문화와 교류하려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현상적인 특징이다. 지역 분권화로 인한 소외를 경험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서울이나 세계 각 지역의 공연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그들과의 연대감을 모색한다.

각 지역의 축제가 '국제적'이라는 뜻을 내걸고 공연 참여자와 관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타문화와의 교류가 전제 조건이기에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 작품은 예술성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상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단시간에 걸쳐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국제 규모의 축제는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생존해야 할 토대를 공고히 다지지 않은 채 급조하는 인상이 짙다. 우선 해외 유명 연극제가 오랜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모해

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 연극제 외에도 많은 지역들이 각기 다른 성격과 중·소규모의 연극제를 갖고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자. 그리고 이들 연극제의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과정을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것이 한 걸음 물러서서 앞으로 도약할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간과되고 있는 것은 축제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축제에 참가하는 공연 작품들인가? 축제의 명성을 쌓아올리고자 고군분투하는 조직위원회인가? 축제 지역의 주민들인가? 이 같은 질문이 우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답변이 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역 축제야말로 지역 주민의 행사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셋의 조화가 축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필요 충분한 조건인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지역 연극 축제가 존재할 수 있는 일차적인 당위성이다. 거기에 조직과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연의 질적 품위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성취한다면 지역 연극 축제의 존립 당위성이 완결된다고 하겠다.

지역 연극 축제 중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과천세계마당극축제> <춘천국제인형극축제> <밀양여름 공연예술제> <거창국제연극제> 등 지역 연극 축제가 활성화 된 것이 10년 안팎의 일이다. 이들 축제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유명, 무명의 연극 축제가 성행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더 많은 지역이 조만간 자체의 축제를 갖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연극 축제가 전제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가? 우선 지역의 특성을 살펴 연극제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자. 연극이란 일종의 대화임을 명심하며 공연의 양식과 범주를 정하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지역 연극 축제는 지역 상품의 개발과 경제적 활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연극이라는 장르와 결합하여 중앙 문화와 세계 각지의 문화를 연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현상적인 특징이다.

자. 소모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북돋우면서 의식 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 여름의 세 지역 연극 축제의 풍경

〈과천마당극축제〉와 〈춘천인형극축제〉는 연극 축제의 장르를 규정하여 독자적인 성격을 구축한 또 다른 예이다. 전자는 마당극이라는 야외극 형태가, 후자는 가족 단위의 관객을 유혹하는 인형극 형태가 연륜을 쌓아가면서 명성을 확보한 경우이다. 서울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두 연극제의 성공 요인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거창국제연극제〉는 지역이 축제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이다. 세 연극제 공히 서울과 거리가 먼 조건에서 지역 문화의 창달을 의도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지향해야 할 바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포항바다국제연극제 2001년 시작하여 올해로 5회에 이른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가야금과 아쟁의 독주와 전통 무용이 포함된 공연들, 루마니아, 폴란드, 독일에서 온 세편의 해외 공연, 그리고 여섯 편의 국내 공연, 두 편의 대학공연으로 구성되었다. '국제'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의 소규모 연극제였으며 구성을 위한 선행 기획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즉, '국제 연극제'를 유치하려는 욕망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연극제의 성격이 모호해진 채 행사성의 연극제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개막 공연에 2,000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지역 주민의 호응도는 높았으며, 억제되어 온 지역 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뜨겁게 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극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환호동 해맞이

공원'의 천연 절경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관객이 지역 주민이기에 심각하고 관념적인 공연보다는 대중적인 소재의 연극이 바람직하며 관객 서비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연의 선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초기부터 국제연극 행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첫 단계로서 지역 연극제의 토대를 만든 후 다음 단계로서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다를 소재로 한 연극들로 특성화하여 연극제를 구성하는 것도 특성화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밀양여름공연예술제 황량한 폐교에 자리 잡고 5년이라는 경력을 쌓아가면서 개최된 〈밀양여름공연예술제〉는 그 성격과 기능면에서 다른 어떤 연극제보다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에는 축제의 성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듯하다.

첫째, 문화의 접촉이다. 작년부터 참여한 독일 현대 무용 출신 헤르게와 연극촌 촌장인 전통 무용가 하용부가 〈몸의 움직임〉을 공연하였고, 헤르게 연출로 카자흐스탄 국립극단 배우 나타샤와 연희단 거리패 배우가 〈피의 결혼〉을 공연하였다. 여기에 임진택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마당극 〈해랑과 달지〉로 변안하여 참가하기도 했다. 언젠가부터 동서양의 접촉을 시도해 온 '연희단 거리패'의 대표 이운택의 연극 정신이 드러나는 프로그램 구성이다.

둘째, 대중극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이운택의 또 다른 면모가 엿보이는 것은 천막극장의 형태로 운용된 '연희단 거리패'의 레퍼토리들이며 손숙과 강부자가 출현한 〈어머니와〉와 〈오구〉의 공연을 통해서이다. 특히 신주쿠 양산박이 공연한 〈바람의 아들〉은 대중극과 축제극, 실험극인 극장 운용의 예를 보여준 경우이다.

셋째, 〈젊은 연출가전〉의 11편의 참가작과 대학극 9편을 유치함으로써 젊은 연극인을 위한 실험과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축제 기간 중에 병행되는 양승희의 신체연기, 남궁호 마임연기, 헤르게의 신체연기의 워크숍들은 그 같은 의도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연희단 거리패'라는 민간 주도로 시작된 연극 축제이기에 지역 주민이 축제의 주체이기보다는 소비자로 남겨지고 만다. 대중극의 레퍼토리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할 지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축제의 주체로 자리하는 한 <밀양여름공연예술제>는 지역 축제로서의 기능과 실험을 위한 연극 캠프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듯하다.

거창국제연극제 1989년 거창 연극인들과 경남 극단들이 연극 축제형태로 거창연극제의 첫 막을 올린 지 17년째. <거창국제연극제>는 자연 계곡과 물이 환상적인 극장 환경을 이루며 매년 그 규모가 팽창 일로에 있다. 올해에는 7개국 45개 팀이 참가해 열 개의 야외극장에서 연극 뿐 아니라 음악, 무용 등 199회 공연을 펼쳤다. 축제를 찾은 관객도 매년 6만에서 11만, 그리고 올해는 15만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획에 있어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나 <아비뇽 페스티벌>과 같은 국제 축제의 규모와 명성에 집착하면서 주축측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만 듯하다. 물론 일관성을 놓은 것이 의도적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해외 공연은 각국의 민속 무용극과 거리극, 신체와 시각적인 움직임이 강조된 퍼포먼스적 공연이 주를 이루어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는 데는 안성맞춤이었으나 공연 자체의 질은 크게 주목 할 만하다고 할 수 없다. 진정 해외 유명 연극제에 버금가는 연극제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규모보다는 내용을 추슬러야 할 시기라고 하겠다. 작품 선정을 위한 정보와 재정적 기반을 확

보하여야 한다. 두, 세 가지의 <거창국제연극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컨셉을 정하여 매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국내 공연 역시 대사 위주의 진지한 정극, 가족 단위의 관객을 겨냥한 대중극, 신체



경남 거창군에서 개최된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못해 번잡스럽기까지 하다. 대부분의 국내 공연이 애초에 실내 극장의 무대를 위해 만들어졌기에 공연 양식이나 관객의 소통 문제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개별 극단의 공연 진행도 때로는 도우미 없이 위태롭게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기획에서의 문제가 심각했다.

셋째, <거창국제연극제>는 축제에 참여한 관객의 수에서나 지역 사회에 미친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 주민의 동참 등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나 사회의 문제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식을 계몽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황무지를 일구었던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기반을 다져야 할 때이다.

대안 문화로서 지역 연극 축제의 가능성

거창이나 포항의 관객들이 연극 축제에 구름처럼 몰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야외극 축제는 극장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이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밀양여름공연예술제>의 폐교 건

무엇보다 지역 축제에 대한 이상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축제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지역 의식을 선도하는 가능성에 도전해야 한다.

물 역시 기존 극장에 대해 편안하지 않은 느낌을 지닌 주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용이함을 지닌다. 또한 기존 극장 건물이 지식인 계층의 관객을 수용하며 다른 계층의 지역 주민에게 폐쇄적인 것에 비해 야외극장은 모든 사회 계층에 대해 개방되어 있으며 민주적이다. 야외라는 환경이 축제와 어우러져 북적거리는 흥취와 생동감을 주는 것도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거창이나 포항의 경우처럼 계곡과 바다의 자연 환경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축제의 근본정신과 부합하는 것도 축제의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잔치의 메뉴라 할 수 있는 공연 작품들의 선정이 내용과 양식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이들과 연극이라는 체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흔히 거론되듯이 초기 단계에서는 실험적 연극보다는 대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예술성과 실험성을 추구해야 한다. 첫 단계에서는 심각하고 섬세한 서사 중심의 연극보다는 지역 주민이 보다 맛나게 즐길 수 있는 신체와 음악이 주요 표현의 수단이 되는 퍼포먼스적인 공연이 소통을 위해 유효하다. 무대에서 행해지는 제시적인 연극 양식보다는 유동적이고 객석에 다가가 섞일 수 있는 양식이 바람직하다. 그 같은 맥락에서 무조건 해외 유명 극단이나 서울에서 성공한 공연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공연이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외 유명 극단과 유명해진 중앙 극단을 모시기 위해 도립 혹은 시립의 거창한 문화 회관은 오히려 지역 주민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 만일 중앙의 연극을 계속 초대하여 연극제를 유지하다보면, 그 지역의 연극제는 중앙에서 진부해져버린 공연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모든 지역 축제가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보다 지역에 적합한 축제 양식

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는 것도 축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거창의 계곡, 포항의 바다, 춘천의 호반과 같은 자연 환경을 심분 활용한다면 관광객을 관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외적인 자연 환경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각 축제의 고유한 성격을 구축하여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 축제에 대한 이상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축제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지역 의식을 선도하는 가능성에 도전해야 한다. 하나의 도전으로서 관습적인 제도적 연극과 달리 대안적인 연극 방식을 도입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지역 주민을 공연에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 밖에서 축제를 치르기 위해 공연을 찾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극단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역의 역사나 중요한 관심사를 소재로 새로운 극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을 소재로 하는 희곡을 찾는 것이 가장 공들여야 할 하나의 부분이 될 것이다. 새로운 극 양식이 만들어지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극장의 무대에서 공연되는 세련된 극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배우들로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유동적인 무대와 성긴 극양식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가능한 많은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과정과 책임을 함께 나눈다면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뿐 아니라 지역민의 의식 개발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사회를 변모시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축제는 지역민의 삶을 표현하고 모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